

'150억 몸값' 함평 황금박쥐, 새 둠지로 이전...상시 공개

함평문화유물전시관 이전...내달 26일 선포 관광객 접근성 향상·양질의 볼거리 제공 '기대'

매년 축제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공개됐던 함평 대표 조형물 '황금박쥐상'을 매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함평박쥐상이 기존 화양근린공원에서 500m 떨어진 엑스포공원 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에 제2회 나비대축제 개장에 맞춰 다음 달 26일 대중에게 공개된다.

황금박쥐상이 이전되는 함평문화유물전시관(함평추억공작소)은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위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황금박쥐상은 전시관 1층 입구 97㎡(29평) 규모의 공

간에 자리하게 된다.

새로 이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황금박쥐 전시는 동굴을 형상화한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며, 박쥐의 분류와 생김새·박쥐 초음파에 대해 첨단 기술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이어 동양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인식된 박쥐의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고, 또 하나의 조형물인 '오복포란'을 직접 만지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이 복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황금박쥐를 터치하면 복과 관련된 전통 생활용품, 회화, 공예품, 건축 장식 등과 함께 복의 박쥐 캐릭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관람객 앞 또는 손 위로 박쥐의 합격, 부귀, 다산, 장수와 관련된 복의 키워드가 조형물로 비춰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인다.

일제 강점기 고산봉 자락 폐광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된 스토리와 기존 황금박쥐 조형물을 배경으로 함평의 해질녘부터 동이 터오기 전까지의 박쥐의 시간에서 바라본 밤하늘 풍경을 재현한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이자 멸종위기 동물 1급인 황금박쥐는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9년 함평군 고산봉 일대에서 최초 발견된 후 162마리가 집단 동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전체 황금박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사회는 물론 학계의 큰 관심을 받



함평군 함평 화양근린공원에 전시된 황금박쥐 조형물이 엑스포공원 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돼 상시 공개된다. <함평군 제공>

었다.

함평군은 황금박쥐를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해 2005년 순금 162kg과 은 281kg을 매입, 2008년 높이 2.18m, 폭 1.5m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했다.

또한 2008년 화양근린공원 내 황금박쥐생태전시관을 건립, 황금박쥐상을 전시하면서 2019년 황금박쥐상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봄·가을 축제 시즌에만 공개해 왔다.

특히 16년 전 황금박쥐상 제작 당시 27억여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150억원에 육박하면서 5배가 넘는 시세차익으로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상의 군수는 "황금박쥐상을 함평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에 축제 시즌 이외에도 상시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함평의 관광 효자상품인 황금박쥐상 전시 뿐만 아니라 황금박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육아 중인 90여명 여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아이키우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총력'

일·육아 병행 여직원 90여명 소통 간담회 육아시간 확대·출근 시간 늦추기 등 건의

신안군이 육아 중인 직원들의 근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해 아이키우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 중인 여직원 90여명과 함께 두 시간에 걸쳐 마음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 중인 여직원들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하는 장이 됐고, 참석자 모두 사립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애로사항도 함께 건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공감하며 손꼽았던 애로사항

으로는 임신 중 힘들거나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가봐야 하는 상황에서 주면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아이의 등원, 등교 후 다급한 출근으로 자신의 아침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 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요일 아침이면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과의 매번 반복되는 이별에 가슴 아픈 눈물 사연 등을 공유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육아시간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임신부 주차장 설치, 아이 등원으로 출근 시간 늦추기, 축제 지원 근무 시간 배려, 설 명절 시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한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존 5세까지던 육아시간을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을 환영하면서,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우량 군수는 "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개인의 몫이 아니고 소속된 조직도 부모가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남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안=양훈 기자

목포해양대-인천대 통합 추진 무산

5주간 통합안 정밀검증 과정 거쳐 없던 일로

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 추진이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무산됐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최근 '대학 미래 생존전략' 정책 공모로 선정된 '인천대 통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본부 측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약 5주간 '인천대 통합안'에 대해 ▲인천대학교 통합안 및 통합추진 의향 공식 질의 ▲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안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밀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과정을 통해 '인천대의 현재 여건에선 목포해양대와 통합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는 공문을 수신, 또한 법무법인 검토 결과 '양 대학의 통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대학 미래 생존전략"을 통해 제시된 정책 가운데 대학 구성원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목포해양대-인천대 통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 및 지역사회의 지역 상생 요구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음에도 대학 의견을 존중해 민주적으로 선정된 정책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했고, 현 체제에서는 추진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이어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시 '인천대 통합안'에 대해 언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조를 근간으로 지자체, 광역·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나주대교-금천IC 교차로 LED 가로등 90여대 설치

나주시는 20일 "시민 안전을 위해 나주대교-금천IC 교차로 32km 구간엔 LED 가로등 90여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해 진행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나주대교-남평오거리' 9.2km 구간엔 200여대의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 2개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투입, 시도 36호선 나주대교-금천IC 교차로 32km 구간엔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 등정교차로-남평오거리 시도 37호선 25km 구간엔 사업비 3억6천만 원을 들여 가로등 60여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도 36호선과 37호선의 연결 도로인 국도 1호선 35km 구간엔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설치한다. /나주=정종환 기자

김산 무안군수 "전남 서남권 의대 신설 희망"

의료 취약지역 서남권 신설 타당

김산(사진) 무안군수가 전남 서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 의대 신설 추진 약속을 환영하며, 전남 200만 도민의 30여년 숙원 해결 기대감이 매우 높아져 반드시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일자리 수, 재정자립도 등 경제적인 부문에서 많이 뒤쳐져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동부권의 3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유인도의 44%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비해 의료시설 부족으로 중증도 이상 질환자의 경우 치료 시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도서지역, 농촌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남권(목포대)에 전남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불가능했던 전남지역 의대 신설의 청신호가 비로소 찾아온 만큼, 소중한 기회가 자칫 지역 간 불협화음으로 무산돼

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남 의대 신설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6 학년도 국립 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 반영을 이뤄내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전남의대 신설 발표와 관련하여 김 군수는 "큰 틀에서 전남도의 추진 방향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약 지역인 서남권(목포대)에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전라도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현대삼호중, 조선해양산업 발전 활성화 업무협약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 목포대에 설립

현대삼호중공업은 20일 "지난 19일 현대삼호중공업 본사에서 목포대학교, 전남대불산학융합원과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은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조두연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공유 ▲기술개발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논의했다.

앞으로 3곳의 협력단체는 조선해양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 설립, 고도화된 기술 연구·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 활용,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해양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을 목포대학교에 신설하고, 원자력 선박, 차세대 액화가스 운반선(수소·암모니아 등) 등 차세대 제품개발, 조선업체 자동화·제조혁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DT인재 육성, 외국

인 근로자의 LNG 화물창, 용접기술, 생산설계 등 특화교육에도 상호 협력한다.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은 "협약은 서남권 중소 조선업체의 자동화·제조혁신을 대학이 지원하고,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내 글로벌 혁신과제와 연계해 지역 조선산업의 글로벌 미래기술 확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나동호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목포대학교, 전남대불산학융합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완도군-GS리테일, 농수특산물 소비 활성화 '맞손'

완도 전복 등 농수산물 판로 지원·마케팅 협력

완도군은 "최근 완도군청에서 GS리테일과 완도군 농수특산물 유통 판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협약식은 신우철 완도군수, 정준호 GS THE FRESH 사업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전복, 광어, 비파 등 완도 농수산물의 유통 판로 지원·마케팅 홍보 등을 통해 생산자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수산업 발전·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홍보·소비 활성화에 적극 협력 ▲고품질 완도 농수산물

의 원활한 공급 체계·판매 촉진 지원 ▲소비 촉진 행사·프로모션 활동 지원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 컨설팅·제품 개발·판매·홍보 등이다.

신우철 군수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호 GS리테일 THE FRESH 사업부장은 "완도군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완도군, GS리테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농수특산물 유통 판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